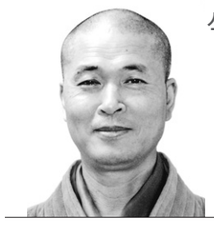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도인은 생각 밖에 있다

학승이 물었다.
"근본에 돌아가 뜻을 얻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매우 황당할 뿐이다."
학승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인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問 歸根得旨時如何 師云 太慌忙生 云不審 師云 不審從甚處起

뜻을 얻다니, 가소롭다. 그렇게 뜻을 얻는 것이라면 왜 납자들이 수십 년을 찾아 헤매고도 얻지 못하는가? 또 3아승지겁을 수행한 석가모니도 가섭에게 전하지 못했는데 네 말은 나를 황당하게 하는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는데 그 인사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가? 그것을 안다면 근본 뜻을 얻었느니 얻지 못했느니 하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유상공(劉相公)이 절에 와서 스님이 경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대선지식이 어찌하여 먼지를 쓸고 계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劉相公入院 見師掃地 問 大善知識爲什麼卻掃塵 師云 從外來

조용한 아침에 먼지 한 알갱이가 들어와 도량 전체를 어지럽히는구나.

학승이 물었다.
"예리한 검이 검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녹슬었어."
학승이 물었다.
"올바른 질문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런 한가한 공부 하는 사람 없네."
학승이 물었다.
"그렇다면 차수하고 면전에 서있는 사람을 어찌하시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침저녁으로 자네의 차수를 보네."
학승이 물었다.
"차수하지 않을 때는 가히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가 차수하지 않는 자인가?"

問利劍出匣時如何 師云黑 云正問之時如何辨白 師云 無者閑工夫 云叉手向人前爭奈何 師云 早晩見你叉手 云不叉手時如何 師云 誰是不叉手者

예리한 검이라고 말하나 검집에서 나오면 벌써 무뎌지고 만다. 때문에 아무리 폼 잡고 올바른 것이라며 질문을 던져 봤자 항상 본질에서 빗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한가하게 그런 것에 대답해줄 사람이 이 도량에는 없다. 그대가 백날 합장하고 서있어 봐라. 눈썹하나 움직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공연히 고생하지 말고 합장하고 합장하지 않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보라. 종문의 제1 화두이다.
"매해 봄만 되면 꽃이 피는데 쳐다볼 겨를이 없으니."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힘을 얻는 것(得力處)입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자네의 어디가 힘을 얻지 못한 곳인가?"

問 如何是沙門得力處 師云 你什麼處不得力

도인은 최소한 구름을 타고 다녀야 하고, 미래 일을 알아맞혀야 하며, 수염을 근사하게 휘날리고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라. 도인은 그런 곳에 없다. 도인은 그대의 생각 바깥에 있다. 생각해 보라. 역사 이래 고래등 같은 대궐에서 사는 사람 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는가?

신기하지 않는가.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내딛어 앞으로 갈 줄을 알다니. 뿐만 아니라, 김치를 담그고 된장으로 요리를 한다. 어디를 가도 저녁에 집을 찾아오다니, 이것이야말로 신통 중에 신통 아닌가. 바로 그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33〉

분석다양… 열반으로 가는 길 동일

십이연기설-②여러 관점의 십이연기

십이연기(十二緣起)란 인간이 경험하는 괴로움[苦]의 전개과정을 열두 가지의 인과관계로 분석해 놓은 것이다. 초기불교의 경전에서는 이 열두 항목을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로 나누고 이들의 관계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리와 괴로움을 없애는 원리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전자를 유전연기(流轉緣起)라고 하고 후자를 환멸연기(還滅緣起)라고 한다.

유전연기에 의하면 십이연기는 사성제(四聖諦)나 연기의 이치를 알지 못함[無明]으로 인해 신체와 생각과 말의 잘못된 행위[行]가 있게 되고, 이러한 행을 원인으로 해서 인식주체로서의 식[識]이 있게 되며 마지막에는 태어남으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의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환멸연기에 의하면 십이연기는 사성제나 연기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해 신체와 생각과 말의 잘못된 행위가 멸하게 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태어남도 없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의 모든 괴로움이 멸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십이연기는 동일한 학파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분석됐고 그 이해는 후대에도 그대로 계승됐다. 우선 부파불교에서는 십이연기를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로 설명한다. 삼세양중인과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라고 하는 두 번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십이연기 중에 무명과 행은 과거의 원인이고 식·명색·육처·촉·수는 그 원인에 대한 현재의 결과이다. 또한 그 다음의 애·취·유는 현재의 원인이고 마지막 생·노사는 미래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삼세양중인과설은 남방불교와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에서도 정설이 됐다.

또한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는 삼세양중인과설과 별개로 십이연기의 존재방식을 네 종류의 연기로 설명한다. 첫째가 찰나연기(剎那緣起)로 십이연기의 십이지 각각은 동일한 찰나에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연박연기(連縛緣起)로 십이지가 각각 연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이 연박연기에 의한 것이다. 세 번째는 분위연기(分位緣起)로 십이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로 설명한 삼세양중인과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원속연기(遠續緣起)는 분위연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장해서 아주 먼 과거와 아주 먼 미래에까지 이르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십이연기설은 또한 사제설(四諦說)과도 연관된다. 예컨대 고집멸도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보는 순관(順觀)을 집과 고로 설명할 수 있고 괴로움을 멸하는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보는 역관(逆觀)을 멸과 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집은 고의 원인이고 도는 멸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사제설에서는 고를 멸하는 원인인 도(道)를 특히 강조한다. 이는 십이연기설이 괴로움[苦]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인 유전연기의 설명에 중점을 두고 그 괴로움을 없애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인 환멸연기를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환멸연기는 오히려 도제(道諦)로서의 팔정도에 의해 구체화된다. 말하자면 사제설의 도가 팔정도를 통해 괴로움을 멸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면 십이연기의 환멸연기는 그 팔정도를 통해 괴로움이 멸해 가는 원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십이연기는 상대의 근기나 이해력에 맞추어 여러 각도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십이연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든 그 목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자각하고 그 원인을 없애가는 것에 의해 열반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㊳

참으로 희유하고 불가사의 합니다. 세존의 어머님은 단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다나(自說經)〉

"엄마가 죽었다. 오늘, 혹은 어제일지도." 까뮈의 소설 〈이방인(異邦人, L'étranger)〉은 이렇게 시작된다. 까뮈전집을 완역하신 김화영(金華榮)선생은, 불어의 원어 마망(maman)을 '어머니'로 번역해서는 오역이라 본다.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전집판의 새로운 번역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다 고쳤다 한다.

어머니와 엄마는 무엇이 다를까? 나는 김화영 선생의 이 새로운 번역에 동의한다. 어머니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 다 동일한 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게는 '엄마'만 있고 '어머니'는 없다. 사실상 그렇다. 그것이 나의 의식 속 일이다. 이제 다 어른이 되었으니까, 남들 앞에서라든지, 혹은 존칭의 뜻으로 '어머니 보셔요'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나 내게는 '엄마'일 뿐이다.

내가 엄마를 의식하기 전부터, 나는 엄마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끈이 잘렸지만, 이제는 그 끈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은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한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더라도, 그렇게 엄마는 내게 살아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는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되는 것, 그것은 금생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엄마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 그저 내 마음에 미루어서 짐작할 뿐이다. 어쩌면 나보다 더 끈끈하게 엄마를 엄마로 가지고 있을 터이다. 나는 엄마를 한번 떠난 적이 있지만, 아들은 엄마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엄마는 그 모든 것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그런 엄마가 없는 아이가 있다. 어떨까? 그 어린 마음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 엄마는 "태어난 지 이레째 되는 날에 죽음을 맞아 도솔천에 태어났기"(이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사, 90쪽) 때문이다. 이보다 더한 사례도 있긴 하다. 중국 근대의 고승 허운(虛雲, 1840-1959)스님은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레(七日)의 시간차는 있지만, 부처님이나 허운 스님이나 다 엄마와 자기 생명을 바꾼 셈이다.

이 사실이 부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불교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나는 오래 전부터 궁금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문헌을 만나지 못했다. 가끔 혼자서 이리저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뿐이다. 지금까지 읽어본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어린 소년 싯다르타가 매우 감수성이 풍부했다. 일찍부터 생노병사를 겪는 인간존재에 대해서 깊은 사색에 빠져들곤 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네 성문(城門)에서 만난 견문들이 그의 발을 성 밖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나는 상상한다. 거기에는 분명 그와 함께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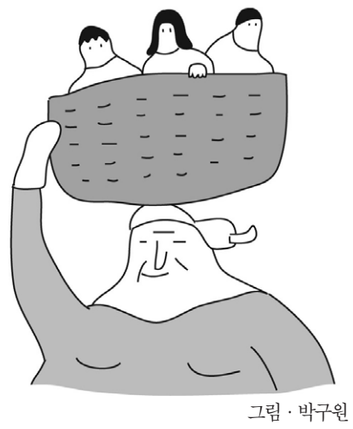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숨쉬고 있던 엄마를 한번도 만져보지 못한 한 아이의 고독이 있었을 터이다. 그 고독이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다. 비록 이모가 키워주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모(姨母)는 이모(二母)이다. 한없이 감사한 이모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있었지만, 이모는 어디까지나 이모일 뿐.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 아난다여! 무릇 보살의 어머니는 단명을 한다."(90쪽)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던 것처럼, 붓다의 깨달음 뒤에는 엄마의 죽음이 남겨준 무상감(無常感)이 있었을 것이다. 엄마 이야기를 하니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내 환갑 때까지 꼭 살아주시길 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삼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1실 평생거주할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녀 20분만 평생모십니다.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문의 : 회향선원 011-771-7575

모 집

심인불교대학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教)와 기본교리(基本教理)는
밀교사상(密教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등록금 : 100,000원
◆교재비 : 30,000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